

마카베오상 10-11장의 ‘진홍색 사제복’에 관한 소고(10:20, 62, 64; 11:58)

류호성*

1. 문제 제기

옷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개인의 지위나 권력뿐만 아니라 그룹의 정체성 그리고 직조 기술 및 무역에 관한 중요한 사회·문화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¹⁾ 이러한 것들은 성서의 세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두로(Tyre) 왕 후람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기술자로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대하 2:7)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두로 왕은 솔로몬의 요구대로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어머니는 단 지파²⁾ 출신의 기술자를 보낸다(대하 2:14).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첫째는, 솔로몬은 왜 하필 두로 왕에게 부탁을 하였는가? 그것은 두로 지방이 있는 페니키아 해안에서만 자색 염색의 원료인 빨고둥을 잡을 수 있었기에,³⁾ 그 지역은 옛날부터 염색 기술과 직조 기술이 발전하였기 때문이다(참조, 겔 27:16). 둘째는, 왜 다른 색깔이 아닌 ‘자색 홍색 청색의 실’을 직조하는 사람을 솔로몬은 원했을까? 그것은 유대 사회에서 이 세 실의 혼합은 성막의 휘장(출 26:1-37)이나 대제사장의 옷(출 28:1-30)에 구별되어 사용하도록 모세가 명했기 때문이다. 이 전통에 따라 솔로몬도 성전의 휘장에는 이 세 가지 실을 사용하였다(대하 3:14). 결국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의 혼합된 옷을 입는 자는 유대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최고의 위치와 권력을 가진 자를 뜻하게 되었다.

* 장로회신학대학교 강사, 신약학.

1) Douglas R. Edwards, “Dress and Ornamentation”, David Noel Freedman, ed.,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2 (New York: Doubleday, 1992), 232.

2) ‘단 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 ‘조각과 직조’의 기술이 뛰어난 것 같다. 성막을 만드는 데 ‘단 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는 베 실로 수 놓은 자”였다(출 38:23).

3) H. Schneider, “Purple”, M. Landfester, ed., *Brill’s New Pauly: Encyclopaedia of the Ancient World*, vol. 12 (Leiden: Brill, 2003), 231; Frederick W. Danker, “Purple”,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5, 558.

우리가 논의 할 마카베오서는 셀류시드 왕조 아래에서 종교적 자유를 갈망하며 대항하였던 유대의 마카베오 혁명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중 마카베오상 10-11장은 이 혁명의 지도자인 요나단(BC 160-142)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는 셀류시드 왕조 내에서 일어나는 권력 투쟁 분위기를 이용하여 유대의 종교적 자유뿐만 아니라 일단의 정치적 독립을 획득하는 데 성공을 거둔다. 그래서 그는 알렉산더 발라스로부터 “대제사장과 왕의 친구라는 칭호”를 얻고, 그로부터 “**진홍색 사제복(πορφύραν)**과 황금 관”을 선물로 받는다(『공동개정』 1마카 10:20).

헬라이어 πορφύραν을 우리말 『공동개정』은 ‘진홍색⁴⁾ 사제복’이라고 번역하였고, 이 표현은 마카베오상 10-11장에 네 번 사용되었다(10:20, 62, 64; 11:58). 그러나 이 표현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유대교의 대제사장이 특별히 ‘진홍색 사제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독자들을 혼동케 만들기 때문이다. 둘째는 ‘진홍색 사제복’이라는 표현은 πορφύρα가 상징하는 의미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는 마카베오상 10-11장에서 긴박하게 진행되는 정치적 상황을 단순히 종교적 의미로 독자들이 이해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사실 요나단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적 제의만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군대를 소집할 수 있는 통치자’이다(1마카 10:21, 65).

이 논문은 크게 네 분야에 걸쳐서 살펴볼 것이다. 첫째는 옷의 색깔 중에서 πορφύρα(자색)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는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셋째는 마카베오상 10-11장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것이고, 넷째는 우리말로 ‘진홍색 사제복’이라 번역된 곳의 본문 이해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홍색 사제복’을 대체할 적절한 우리말 번역을 제시해 볼 것이다.

2. 자색(πορφύρα)의 상징적 의미

성서의 세계는 화려한 색상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방랑하는 히브리 민족이었기에 색깔의 언어와 염색 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었고, 또한 종교적 율법이 색깔이나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였기 때문이다(출 20:4; 겔 20:7).⁵⁾ 그들의 이러한 삶의 환경은 색의 화려함에 대

4) 붉은색, 진홍색(眞紅色) 그리고 자색(=자주색)은 같은 계열의 색상이기에 선뜻 구분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붉은색을 기준으로 파란색을 약간 섞으면 진홍색이 되고, 더 많은 파란색을 섞으면 자색이 된다.

5) James A. Patch, “Color”, James Orr, ed.,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aedia*, vol.

해 상반된 견해를 갖게 하였다.⁶⁾ 하나는 부정적 시각으로, 화려한 색상의 옷이나 물건들을 사치품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대개 이런 것들은 수입된 것으로, 부유한 왕족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화려함을 부패함과 우상숭배 하는 것으로 빗대어 말하였다(겔 23:6; 렘 40:3).

다른 한편, 화려한 색상은 성막이나 성전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이해되었다. 성막이나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에는 특별히 “가늘게 꼰 베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출 26:1; 28:6; 대하 2-3)이 사용된다. 이 4가지 화려한 색깔에는 그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성막의 휘장과 관련해서 세마포는 삼이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지구를 상징하는 것이고, 자색⁷⁾ 실은 고기의 피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를 상징하는 것이고, 청색 실은 공기를 의미하며, 홍색 실은 불을 상징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4개의 원소로 만들었음을 의미한다(요세푸스, 『유대고대사』 3. 183-4).

색깔에 대한 유대인들의 독특한 특징은 색의 혼합을 바로 앞서 언급한 신성한 용도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제한한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이교적인 문화에서 혼합은 보편적으로 행해졌기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혼합을 철저히 금지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수한 백성으로 살고자 했기 때문이다.⁸⁾

여러 색깔들과 관련하여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오늘날의 기독교 문화권에서 별 차이가 없이 사용된다. 그것은 기독교 문화가 구약성경을 성경의 문헌으로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색(Gray)은 연로함을 의미하며(창 42:38; 44:29), 초록색(Green)은 초목과 생명을(창 1:30), 빨간색(Red)은 피, 전쟁(계 6:4) 그리고 죄(사 1:18)를 의미하며, 노란색(Yellow)은 피부병(레 13)과 금(시 68:13)을, 검정색(Black)은 우주적 재난을(미 3:6; 계 6:2) 그리고 흰색(White)은 순수함(단 11:35; 사 1:18)을 의미한다.⁹⁾

탈무드(Menahot 43b)에 따르면 여러 색깔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청색(Blue)이다.¹⁰⁾ 왜냐하면 청색은 바다를 상징하고, 바다는 하

2 (Grand Rapid: Wm. B. Eerdmans Publishing, 1939), 674-676 참조.

6) D. Matthew Stith, “Colors”, Katharine D. Sakenfeld, ed., *The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1 (Nashville: Abingdon Press, 2006), 701.

7) 헬라어 ‘자색’(πορφύρ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대응어는 צָרְבָּתִים이다.

8) 참조, 류모세, 『열린다 성경: 생활풍속 이야기(上)』(서울: 두란노, 2010), 20-21.

9) D. Matthew Stith, “Colors”, 701. 유대인들의 색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James A. Patch, “Color”, James Orr, ed.,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aedia*, vol. 2 (Grand Rapid: Wm. B. Eerdmans Publishing, 1939), 674-676 참조.

10) J. Neusner, trans., *The Babylonian Talmud*, vol. 19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Inc., 2005), 229.

늘과 같으며,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고(출 24:10), 그 보좌의 형상도 청옥과 같았다”(겔 1:26)고 성경은 말한다.

그러나 여러 색들 중에서 **자색(Purple)**은 문화사적으로 아주 독특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¹¹⁾ **첫째로 자색은 부와 사치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자색의 염료를 만드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다. 자색의 염료는 페니키아 해안가에만 서식하는 빨고둥에서 채취한다. 1g의 자색 염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8천 마리의 빨고둥이 필요하였다.¹²⁾ 여기서 채취한 모든 염료가 자색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 최상의 염료가 자색이 된다. 질이 떨어지는 염료는 검붉은 색이나 빨간색이 된다. 그러기에 순전한 자색 옷은 너무나 비싸서 아주 부자 아니면 전혀 입을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참조, 눅 16:19). 고대 시대에 제일 큰 부자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다.

둘째로 자색은 정치적 권력을 상징한다. 자색 옷은 왕들이 입은 옷의 색깔이다. 자색이 왕복으로 사용된 것은 아마도 그 색이 너무나 귀하고 화려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색이 바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색 옷이 왕복으로 사용된 표현은 사사기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기드온과 삼백 용사는 미디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삿 7-8장) 많은 전리품을 갖게 되었다. 이때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전리품 중에서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καὶ τῶν ἱματίων καὶ πορφυρίδων τῶν ἐπὶ βασιλευσι Μαδιαμ)**”을 달라고 요청한다(LXX 삿 8:26). 결국 이것은 기드온이 자색 왕복을 입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기드온이 자색 옷을 입은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복식제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성막과 대제사장 복장에 사용된 ‘청색 자색 홍색의 혼합’은 종교적 영역에서 권위를 갖게 되었으며, 정치적 영역에서는 **자색**이 권위를 갖게 되었음을 뜻한다. 그렇다고 기드온 자신이 당시 사회에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권위만 있고,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는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종교적 지도자를 상징하는 옷, 곧 ‘청색 자색 홍색의 혼합’으로 만든 대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자기가 다스리는 성읍 ‘오브라’에 두는 것으로 종교적 권위를 가졌다(삿 8:27). 그가 대제사장의 의복을

11) 성서와 요세푸스 문헌에 표현된 자색 옷과 권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류호성, “자색 옷을 입은 권력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눅 16:19-31)”, 미발표 (2011)를 참조하라.

12) D. Irvin, “Purple”, G. W. Bromiley, ed.,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vol. 3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6), 1057. Irvin은 “1g의 자색 염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8천 마리의 빨고둥이 필요하였다”고 말한다(p. 1057).

입지 못한 것은, 대제사장의 혈통인 레위 가문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삿 6:15). 그는 자신의 통치 지역에 종교적 상징물인 예봇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을 찾게 하였다.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숭배로 이어졌고 그와 그의 집안은 올무가 되었다(삿 8:27).¹³⁾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자색 옷을 입은 자’는 **그 나라의 최고의 통치권자로**, 곧 ‘왕’이라는 것이다(참조, 삿 8:26; 막 15:17-20). 살아생전만 아니라 죽어서도 왕은 자색의 옷을 걸친다. 그러기에 헤롯 왕의 죽은 시신에 자색의 베옷이 입혀진다(요세푸스, 『유대전쟁사』 1, 671; 비교, 『유대고대사』 17, 197). 다른 하나는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권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르드개인 경우이다. 그는 포로자 출신의 궁궐 문지기에서 왕 다음으로 가는 권력을 갖게 되었다(에 10:3). 그때에 모르드개는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의 베 겹옷(βύσσινον πορφύρου)**을¹⁴⁾ 입고 왕 앞으로 나온다”(LXX 에 8:15). 이것은 최고의 통치권자의 허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자색의 사용 권한은 왕에게 속하였음을 뜻한다(참조, 단 5:7, 29).

이런 동일한 문화적인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난다. 곧 우리나라에서도 자색 옷이 정치권력의 최상의 계층에서 사용되었다. 신라시대에 법흥왕의 제령에 따라 **자색 옷(紫衣)**은 최고의 계층인 태대각간(太大夫)에서 5등급의 대아찬(大阿飡)까지, 붉은색 옷(緋衣)은 6등급 아찬(阿飡)에서 9등급의 급찬(級飡)까지, 푸른색 옷(靑衣)은 10등급 대나마(大奈麻)에서 11등급 내마(奈麻)까지 그리고 노란색 옷(黃衣)은 12등급의 대사(大舍)에서 17등급 선저지(先沮知)가 사용하였다.¹⁵⁾ 이와 마찬가지로 발해에서도 관복을 색깔로 구분하였다. 3질(秩) 이상은 **자색 옷(紫衣)**을, 5질 이상은 붉은 색 옷(緋衣)을, 6질과 7질은 옅은 붉은 색 옷(淺緋衣)을 그리고 8질은 녹색 옷(綠衣)의 관복을 착용하였다.¹⁶⁾

그러기에 고대 이스라엘 문헌을 살펴보는 데에 있어 자색을 종교적인 시각

13) 기드온이 왕적인 권한을 갖고 이스라엘을 통치했으며, 금으로 예봇을 만든 것도 이런 왕적인 권한에 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로서 Daniel I. Block, *Judges · Ruth: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 6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9), 299-301을 참조하라.

14)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은 “자색 가는 베 겹옷”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그 의미가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가는”이라는 표현을 “의”로 바꾸어, 옷의 색깔이 분명히 “자색”임을 나타내는 것이 더 적절하다.

15) 김부식, 『삼국사기』(하), 이병도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1996), 190.

16) 유득공, 『발해고』, 송기호 옮김 (서울: 흥익출판사, 2000), 123.

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시각을 갖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3. 대제사장의 의복

『공동개정』이 πορφύραν을 ‘진홍색 사제복’으로 번역한 것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선이해가 작용한 듯하다. 첫째, 알렉산더는 요나단을 대제사장으로 17) 임명하고 그 직책에 맞게 선물을 보냈을 것이다. 이것은 선물하는 자의 보편적인 관례이다. 둘째, 번역자는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 그 상황에 맞게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 요나단이 대제사장이기에 그 직위에 맞는 단어를 선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제복’이라는 표현은 이 상황과 일치하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진홍색 사제복’이라는 번역이 타당한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대제사장 의복의 색깔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제사장 복장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8장과 39장 그리고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 3, 151-187에 잘 설명되어 있다.¹⁸⁾ 요세푸스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ἀραβίαχην라고 명하는데, 이것은 아람어로 대제사장을 뜻하는 kahana rabba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으로, 첫글자 ‘k’가 빠졌거나 와전된 것이다.¹⁹⁾ 대제사장의 옷은 어떤 차림새를 하고 있는지 속옷부터 살펴보자. 첫째, 베로 만든 속바지를 입어 하체를 가린다(출 28:42). 둘째, 가는 베실로 반포 속옷을 만들어 겉옷 밑에 받쳐 입는다(출 28:4,39). 셋째, **전부 청색**으로 된 에봇 받침 겉옷을 입는다. 이 옷은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짠 긴 옷으로, 가장자리에는 석류와 금방울을 단다(출 28:31-35; 39:22-26). 넷째, 겉옷 위에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만든 에봇을 입는다(출 28:6-8). 다섯째, 허리띠를 두른다(출 28:8). 여섯째, 에봇 위에 흉패를 단다. 이것은 에봇 짜는 것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며, 길이와 너비는 한 뼘으로 한다(출 28:15-16). 일곱째, ‘여호와와의 성결’이라고 새긴 순금 패를 청색 끈으로 매어 이마 중앙에 오게 한다(출 28:36-37). 여덟째, 가는 베실로 관을 만들어 머리에 쓴다(출 28:39).

여기서 우리는 “전부 청색으로 만든 에봇 받침 겉옷(תְּכֵלֶת כְּלִיל תְּכֵלֶת)”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이 옷은 옷을 조각내어서 꿰맨 것이

17) 대제사장의 업무와 결혼에 대해서는 요아힘 예레미아스, 『예수시대의 예루살렘』, 한국신학연구소 번역실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197-212 참조.

18) 참조, 존 J. 필치 and 브루스 J. 말리나, 『성서언어의 사회적 의미』, 이달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76-82.

19) Josephus, *Jewish Antiquities* vol. 4, H. St. J. Thackeray, tra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386-387.

아니라 전체를 통으로 짠 것이다. 예수께서도 이 옷을 입으셨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ὁ χιτῶν)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요 19:23). 우리말 번역에서 재미있는 것은 같은 옷을 갖고 구약에서는 ‘겉옷’으로 번역하고, 신약에서는 ‘속옷’으로 번역하였다. 이것은 옷을 구분하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구약의 대제사장 복장에는 베로 만들어 하체를 가리는 ‘속바지’가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속바지 위에 입는 옷은 겉옷이 된다. 말하자면 구약은 속옷을 기준 삼아 옷의 명칭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속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대신 맨 위에 걸치는 외투를 기준으로 하여 그 외투 안의 옷을 속옷으로 명명하였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구약의 겉옷이 신약에서는 속옷이 된다.

둘째, 이 옷의 색깔이 단색이라는 점이다. 단색이기에 대제사장의 의복 전체에 큰 특징을 부여할 수 있다. 출애굽기 28:31에 대한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개역개정』 그리고 『표준새번역』에서는 ‘청색’으로 번역하였다. 다른 하나는 『공동개정』은 ‘자주빛’으로 그리고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발행한 『성경』(2005)은 동일한 의미의 ‘자주색’으로 번역하였다. 물론 자주색 염료에는 청색 계열의 자주색(bluish purple)과 홍색 계열의 자주색(reddish purple)이 있지만,²⁰⁾ 이 둘은 구별되는 색깔이다. 만약 우리가 대제사장의 겉옷을 『공동개정』에 따라 ‘자주색’으로 이해하면 ‘진홍색 사제복’은 이 겉옷을 의미한다고 이해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자주색’과 ‘진홍색’은 같은 계열의 색깔이기 때문이다.

히브리 단어 חֲבֵלֵי 는 구약성서에 48번 사용되었다.²¹⁾ 『개역개정』은 에스더 8:15를 ‘푸르고’로 번역하고, 나머지 모두는 ‘청색’으로 번역하였다. 따라서 성막이나 대제사장 의복에 사용된 재료를 “청색 자색 홍색 실”(חֲבֵלֵי צָבָה וְחֲבֵלֵי אֲדָמָה וְחֲבֵלֵי שָׁנִי)로 표현하였다. 이와 달리 『공동개정』과 천주교 『성경』은 חֲבֵלֵי 를 ‘자주빛’ 또는 ‘자주색’으로 번역하였다. 『개역개정』의 “청색 자색 홍색 실”에 대한 대응으로 『공동개정』은 “자주빛 털실과 붉은 털실과 진홍빛 털실”로, 천주교 『성경』은 “자주와 자홍과 다홍 실”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에스겔 23:6은 『공동개정』과 천주교 『성경』 모두 『개역개정』과 동일하게 ‘자주빛’으로 번역하였다.

『개역개정』과 『공동개정』에서 색깔에 대해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것은 חֲבֵלֵי 가 무슨 색깔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20) 류모세, 『열린다 성경: 생활풍속 이야기(上)』, 52-55 참조.

21) 출 25:4; 26:1, 4, 31, 36; 27:16; 28:5, 6, 8, 15, 28, 31, 33, 37; 35:6, 23, 25, 35; 36:8, 11, 35, 37; 38:18, 23; 39:1, 2, 3, 5, 8, 21, 22, 24, 29, 31; 민 4:6, 7, 9, 11, 12; 15:38; 대하 2:7, 14; 3:14; 에 1:6; 8:15; 렘 10:9; 겔 27:7, 24(강조한 곳은 “청색 자색 홍색”이 동시에 나타남).

히브리어 사전은 תְּכֵלֶת을 ‘청색’(blue)으로 설명한다.²²⁾ 이에 따라 영어의 NRSV나 독일어 성경은 출애굽기 28:31의 대제사장의 겹옷을 ‘청색’으로 설명한다.²³⁾ 그러나 LXX역에서 תְּכֵלֶת에 대응어로는 ὑάκινθος 또는 ὑάκινθινος(출 26:4; 28:33; 35:25…)가 사용되었다. 이 단어들에 대해 사전적 설명은 하나는 ‘청색’을, 다른 하나는 ‘붉은색’으로 말한다.

ὑάκινθος: of hyacinth, of the color of hyacinth, i.e. of a **red color** bordering on black(히야신스의, 히야신스의 색깔, 즉 검은색에 근접한 **빨간색**)²⁴⁾

ὑάκινθος: hyacinth, the name of a flower…, also of a precious stone of the same color, i.e. **dark-blue** verging towards black(히야신스라는 꽃의 이름, … 또한 검은색에 가까운 **청색** 빛을 내는 귀중한 돌의 색깔)²⁵⁾

헬라어 사전은 히야신스 꽃의 색깔을 하나는 ‘청색’으로, 다른 하나는 ‘빨간색’으로 설명한다. 그것은 그 꽃 자체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파란 잎 새에서 붉은 꽃이 피어난다. 그러기에 관찰하는 자의 입장에 따라서 히야신스 꽃의 색깔은 달라진다. 그렇지만 『공동개정』과 천주교 『성경』은 תְּכֵלֶת를 ‘자주빛’ 또는 ‘자주색’으로 번역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말 ‘자색’에 대응하는 헬라어는 πορφύρα이고, 히브리어는 תְּכֵלֶת이 단어가 더 정확하다(참조, LXX 출 28:5). 둘째, 번역에 대한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8:5의 תְּכֵלֶת וְאַרְגָּמָן וְחֹלֶטֶת הַתְּלִילִים를 『공동개정』은 “자주빛 털실과 붉은빛 털실과 진홍빛 털실과”로 번역하였다. 여기서는 히브리어 תְּכֵלֶת을 ‘붉은빛’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에스겔 27:7의 תְּכֵלֶת וְאַרְגָּמָן를 ‘자주와 진홍색’으로 번역하여, תְּכֵלֶת을 ‘진홍색’으로 번역한다. 『공동개정』은 תְּכֵלֶת을 한편으로는 ‘붉은색’으로 번역하고, 다른 곳에서는 ‘진홍색’으로 번역한다. 그리고 תְּכֵלֶת에 대한 헬라어 대응어 πορφύρα를 마가복음 15:20에서는 ‘자주색’으로 번역한다. 우리가 논의할 마카베오상 10-11장에서는 ‘진홍색’으로 번역

22) W. A. VanGermeren,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vol. 4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7), 292.

23) 출 28:31을 NRSV(1989)는 “You shall make the robe of the ephod all of **blue**”로 그리고 Deutsche Bibelgesellschaft에서 1982년에 출판한 성경에는 “Das Obergewand, das unter dem Amtsschurz getragen wird, sollst du aus **blauer** Wollen in einem Stück weben lassen”로 번역하였다(-저자 강조함).

24) J. H. Thayer, trans.,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Chicago: American Book Company, 1889), 633.

25) Ibid.

하였다. 『공동개정』은 נֶזֶק 를 ‘자주빛’으로 번역함으로, ‘자색’을 뜻하는 히브리어 נֶזֶק 과 헬라어 πορφύρα 에 대해 일관성 있게 번역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자색’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잘 드러내지 못하였다.

탈무드의 언급처럼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은 ‘청색’이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이나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청색 자색 홍색’의 실을 순서대로 언급하면서, ‘청색’을 맨 앞에 두었을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그리고 존귀한 자에게 드리려고 먼저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일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개역개정』의 번역에 따라 대제사장의 겹옷을 ‘청색’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마카베오상 10-11장의 역사적 상황²⁶⁾

셀류시드 왕조의 왕인 알렉산더 발라스는 어찌해서 자신들로부터 독립하려는 팔레스틴의 혁명 지도자 요나단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며 자신의 친구’로 삼는가? 또한 그에게 πορφύραν 와 황금 관’을 선물하였는가? 이를 위해서 당시의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교적 상황은 대제사장의 변동에 초점을 두고, 정치적 상황은 셀류시드 왕가의 분열에 초점을 둔다.

4.1. 종교적 상황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기 전에 유대의 대제사장은 보수적인 사독 계열의 오니아스 III세였다(B.C. 200-175). 그러나 그의 동생 야손(B.C. 175-172)은 안티오쿠스 4세에게 “은 삼백 육십 달란트와 또 다른 수입원에서 팔십 달란트를 그리고 경기장을 건축할 권한과 청년훈련소를 세울 권한과 예루살렘에서 안티오쿠스 청년단을 결성할 권한을 준다면 백 오십 달란트를 더 바치겠다”(2마카 4:9)고 약속하고 대제사장직을 획득한다. 이때부터 대제사장직의 매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야손은 3년 만에 대제사장직에서 쫓

26) 마카비 혁명에 관한 자료는 김희성, 『신약의 배경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9-26; 정연호, 『유대교의 역사적 과정: 바리새파의 재발견』 (서울: 한국성서학 연구소, 2010), 74-79; 보 라이케, 『신약성서시대사』, 한국신학연구소 번역실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61-75; 레이몬드 설버그, 『신구약 중간사』, 김의원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46-57; 앤슨 F. 레이니 and R. 스티븐 나틀리, 『성경 역사, 지리학, 고고학 아틀라스』, 강성열 옮김 (서울: 이레서원, 2006), 393-418 참조.

겨난다. 왜냐하면 빌가 가문의 **메넬라우스**(B.C. 172-162)가 야손보다 '은 삼백 달란트'를 더 바치겠다고 안티오쿠스 4세에게 약속하고 대제사장에 올랐기 때문이다(2마카 4:24). 야손과 메넬라우스 사이에는 극심한 대립이 있었다. 문제는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 제 2차 원정을 떠났을 때(B.C. 169) 일어났다. 안티오쿠스 4세가 죽었다는 헛소문이 돌자 야손은 천명이 넘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기습하였다. 하지만 그의 반란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의 개입으로 이집트 원정에 실패하고, 돌아가는 길에 야손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였기 때문이다(2마카 5:11-16). 결국 야손은 암몬 땅으로 도망가게 되었고, 유랑자의 신세로 있다가 이집트에서 죽었다(2마카 5:7-8). 한편 메넬라우스도 기원전 162년에 안티오쿠스 5세에 의해 베레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2마카 13:3-8).

데메드리오 1세 통치하에서 메넬라우스의 뒤를 이어 아론 가문의 **알키모스**(B. C. 162-159)가 대제사장직에 올랐다(1마카 7:5-9; 2마카 14:3-7). 그는 데메드리오 1세의 친구 바키데스와 함께 마카비 혁명의 지도자 유다와 싸우기 위해 예루살렘을 침공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기원전 159년에 예언자들의 업적을 없애 버리기 위해, 성소 내전의 벽을 헐라고 명령하다가 갑자기 졸도하고 죽는다(1마카 9:54-57). 그의 죽음 이후 요나단이 대제사장이 될 때까지(B.C. 152) 7년간 대제사장직은 공석이 되었다.

4.2. 정치적 상황

셀류시드 왕가는 안티오쿠스 3세를 기점으로 그의 아들 헐통과 그의 동생 헐통으로 구분된다. **안티오쿠스 3세**(B.C. 222-187)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셀류커스 4세**(B.C. 187-175)가 왕이 되었다. 셀류커스 4세의 뒤를 이어서는 그의 동생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B.C. 175-164)가 왕이 되었고, 그 뒤는 안티오쿠스 4세의 어린 아들인 **안티오쿠스 5세 유파토르**(B.C. 163-162)가 왕이 되었다. 안티오쿠스 5세는 내부의 반란으로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때에 로마에 볼모로 잡혀 있던 셀류커스 4세의 아들 **데메드리오 1세**(B.C. 162-150)가 로마를 벗어나 세력을 규합하여 주전 162년에 안디옥에 진격하여 권력자들을 축출하고 아버지의 왕권을 되찾았다(1마카 7:1-7).

한편 기원전 152년에 안티오쿠스 4세의 아들 **알렉산더 1세 발라스**(B.C. 150-145)가 데메드리오의 영토 프톨레마이스에 와서 그 도시를 점령해 버렸다. 이를 계기로 **셀류시드 왕가는 데메드리오 왕가와 안티오쿠스 왕가로** 각

각 갈라져 서로 대립하게 된다. 그 사이에 요나단이 서 있다. 그들은 서로 요나단과 동맹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였다. 그 이유는 데메드리오 편에서는, 그들이 알렉산더를 공격할 때에 적어도 요나단이 가만히 있어 주길 원했기 때문이다. 데메드리오는 유대인들을 몹시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형 유다를 죽인 자이다. 그는 알렉산더와 싸울 때에, 요나단이 과거의 일을 생각하고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다(1마카 10:4-5). 다른 한편, 알렉산더 측에서는 요나단의 군사적 힘을 이용하고자 원했기 때문이다(1마카 10:15).

요나단에게 먼저 호의적인 제의를 보낸 자는 데메드리오 1세이다. 그는 “요나단에게 자기 군대를 모집하여 무장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요새 안에 잡아 두었던 인질들을 석방하도록 하였다”(1마카 10:6). 이 틈을 요나단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포로된 자를 돌려 받고, 서둘러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건설하는 데 착수하였다(1마카 10:9-11).

데메드리오가 요나단에게 편지를 보내어 여러 약속을 하였다는 정보를 알렉산더는 듣게 되었다. 그도 서둘러서 요나단에게 편지를 보내어 약속한다. 그는 요나단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왕의 친구라는 호칭”을 주며, 선물로 πορφύραν과 황금 관’을 보낸다(1마카 10:20).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요나단은 기원전 152년 초막절에 거룩한 사제복을 입었다. 그리고 그는 군대를 모집하여 충분한 무기를 준비한다(1마카 10:21).

기원전 150년 여름 데메드리오 1세와 알렉산더 발라스 사이의 전쟁에서, 데메드리오 1세는 전사한다. 전쟁의 승리로 세력이 커진 알렉산더는 이집트의 왕 프톨레미 6세의 딸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함으로 정치적 동맹관계를 형성한다. 알렉산더는 프톨레미스에서 호화로운 결혼식을 한다. 그는 요나단을 자신의 결혼식에 초대한다. 이에 요나단은 금과 은 그리고 많은 선물들을 알렉산더에게 선사한다(1마카 10:60). 이때에 유대의 반(反)요나단 세력들이 알렉산더에게 요나단을 고소한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요나단의 옷을 벗기고 πορφύραν을 입히도록 명한다”(1마카 10:62.) 이를 보고 요나단을 비난하는 자들은 모두 도망친다(1마카 10:64).

알렉산더 발라스는 장인 프톨레미 6세와 사이가 나빠져 전쟁을 치른다. 알렉산더는 패하여 아라비아로 도망갔으나, 그곳의 잡디엘이라는 자에게 죽임을 당한다(1마카 11:14-17). 알렉산더가 죽고 난 삼일 후에 프톨레미 6세도 죽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 1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데메드리오 2세(B.C. 145-139)가 셀류시드 왕가의 왕이 되었다(1마카 11:14-19).

요나단과 데메드리오 2세는 동맹을 맺었다. 데메드리오 2세는 요나단의 대제

사장 직위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를 인정해 주었다(1마카 11:27). 그리고 요나단이 유다와 사마리아 땅의 조공 대신 돈으로 삼백 달란트 지불하겠다고 수용하였다(1마카 11:28-29). 그런데 데메드리오 2세는 내전을 겪게 되었다. 그의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데메드리오 2세는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에 요나단은 정예병력 삼천을 이끌고 데메드리오를 구출한다(1마카 11:41-48).

이 일이 있은 후에 알렉산더의 옛 부하였던 트리폰이 알렉산더의 후임으로 그의 아들 안티오쿠스 6세(B.C. 145-142)를 왕위에 앉혔다(1마카 11:54). 이에 데메드리오 2세에 반감을 가진 자들이 안티오쿠스 6세에게 모여들었고, 그들은 힘을 합쳐 데메드리오 2세를 물리쳤다. 전쟁에 승리하자 안티오쿠스 6세는 요나단과 동맹을 맺었다. 그는 “요나단이 대제사장임을 인정하며, 그를 네 지방의 영주로 임명하고 또한 왕의 친구 중 한사람으로 삼았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금그릇과 식기들을 선물로 보냈고 황금잔으로 마실 수 있는 권리와 πορφύραν을 입을 수 있는 권리와 황금띠 침쇠를 착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그리고 요나단의 형 시몬에게는 두로의 계단이라고 불리우는 지방에서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의 온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 자리를 주었다”(1마카 11:57-59).

셀류시드 왕가의 이런 분열은 마카비 혁명을 유리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기원전 142년에 요나단의 형 시몬은 유대의 독립 국가를 만들게 되었다.

5. 마카베오상 10-11장의 해석

5.1. 마카베오상 10:20-21의 이해

마카베오상 10:18-20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알렉산더 발라스가 데메드리오 1세와 정치적 대립 상황에서 요나단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제시하는 정치적 제안들이다. 그리고 21절은 그 제안에 따른 요나단의 행동 결과이다. 이에 대해 『공동개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알렉산더 왕이 요나단 형제에게 인사드립니다. … 나는 오늘 당신을 귀국의 **대사제로 임명하고 왕의 친구**라는 **칭호**를 주는 바입니다.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는 이 편지와 함께 **진홍색 사제복과 황금 관**(ἀπέστειλεν αὐτῷ πορφύραν καὶ στέφανον χρυσοῦν)을 요나단에게 보냈다. 이렇게 하여 요나단은 셀류시

왕조 백육십년 칠월 초막절을 기하여 **거룩한 사제복**(τὴν ἁγίαν στολὴν)을 입었다. 그리고 **군대를 모집하여** 충분한 무기를 준비하였다”(1마카 10:18-21)

『공동개정』의 문제점은 첫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πορφύραν을 ‘진홍색 사제복’으로 번역한 것이다. 그 결과 10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긴박한 정치적 상황을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하게 만든다. 무엇보다도 πορφύραν을 ‘진홍색 사제복’으로 번역하여 요나단이 초막절 절기에 이 ‘진홍색 사제복’을 입고 참석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부연 설명하자면, “알렉산더가 요나단을 대체사장으로 임명하고, 그의 직위에 맞는 ‘진홍색 사제복’을 주었기에, 요나단은 당연히 그 옷을 입고 초막절에 참석하였을 것”이라고 추측케 한다. 그러나 요나단이 초막절에 입은 ‘거룩한 사제복’은 모세의 전통에 따른 대체사장이 입는 옷이다(LXX 출 28:2-4). 그 옷의 색깔은 앞선 언급하였듯이 ‘에봇 받침 겹옷은 청색이고, 에봇과 허리띠는 청색 자색 홍색’의 혼합 색상이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요나단에게 보낸 옷은 단색이다.²⁷⁾ 요세푸스는 ‘겉옷’임을 강조하기 위해 στολὴν πορφυρᾶν이라고 보도한다(요세푸스, 『유대고대사』13, 45).

알렉산더가 요나단에게 보낸 πορφύραν와 황금 관’을 종교적 의미로 해석하도록 유도하는 일부의 글이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것은 앵커 바이블 주석 시리즈에서 *1 Maccabees*를 저술한 골드스타인(Jonathan A. Goldstein)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색 옷은 왕의 친구로서의 복장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헬레니즘 시대에 사제의 일반적인 복장이 자색 옷과 금관을 착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메이어 라인홀드의 *History of Purple as a Status Symbol in Antiquity*의 35-36쪽을 보라”²⁸⁾

골드스타인의 첫 번째 설명은 타당하다. 알렉산더가 요나단에게 보낸 πορφύραν은 자신의 친구이며 정치적 동반자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황금 관’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말하고자 알렉산더가 보낸 것이다. 그러나 골드스타인이 라인홀드의 견해를 따라 ‘자색 옷과

27) 헬라어 πορφύρα는 색깔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4격의 πορφύραν가 독자적으로 ‘자색 겉옷’을 의미한다.

28) Jonathan A. Goldstein, *1 Maccabees: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76), 400: “A purple robe was the uniform of the Friends of the King ..., but here we have the standard equipment of a priest in the Hellenistic period, a purple robe and a gold crown. See Meyer Reinhold, *History of Purple as a Status Symbol in Antiquity* ... 35-36.”

황금 관'이 헬레니즘 시대의 일반적인 사제복이라고 설명한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골드스타인은 라인홀드의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인홀드(Meyer Reinhold)는 고대의 자색 옷에 대해 연구한 다음 헬레니즘 시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또한 헬레니즘 시대를 통하여 사제의 위엄성을 상징하는 제의적 복장으로 (금관과 함께) 자색 옷이 폭넓게 사용되었다”²⁹⁾

이에 대한 근거로 그는 각주에서 여러 문헌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이런 진술이 타당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가 제시한 문헌들 중에서 일부 선택하여 살펴보자.

첫째, 라인홀드는 2세기 후반의 그리스 철학자이며 웅변가인 아테나이오스(Athenaeus)가 쓴 *Deipnosophistae* 7. 289 c부분을 인용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우스는 자색 옷을 입고, 머리에는 황금 관을 쓰고, 손에는 규를 들고, 발은 슬리퍼를 신고, 이 신성한 성가대에 참석하고자 걸어 들어갔다.”³⁰⁾ 여기서 제우스가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황금 관을 쓴 것’은 그가 종교적 사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자색 옷을 입었고 그리고 황금 관을 쓴 것이다. 그리고 제우스가 쥐고 있는 규(圭)는 사제의 상징물이 아니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지니는 상징인 것이다.³¹⁾ 제우스는 헬라 문화권에서는 신들 중의 신이다.

둘째, 그는 기원후 46-120년에 살았던 프루타크(Plutarch)의 *Lives*에서 아라투스(Aratus)의 53. 4에 있는 이야기를 인용한다: “이 희생제사의 첫 번째는 제우스의 사제가 지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라투스의 사제가 지내는데, 그는 흰색이 아니라 흰 바탕에 자색이 있는 머리띠를 두른다.”³²⁾ 이 이야기는

29) Meyer Reinhold, *History of Purple as a Status Symbol in Antiquity* (Bruxelles: Latomus, 1970), 36: “Throughout the Hellenistic period, too, there is considerable evidence for the widespread use of purple garments (together with a golden crown) for liturgical costumes symbolizing sacerdotal dignity.”

30) Athenaeus, *The Deipnosophists*, Books VI-VII, C. B. Gulick, trans.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289: “As for Zeus himself, dressed in purple, with a gold crown on his head and carrying a sceptre, his feet shod with slippers, he walked about attended by this divine choir.”

31) 이에 대해서는 류호성, “우리말 성서번역에서 대응어 선택의 문제: 홀과 규”, 『성경원문연구』 2 (1998), 97-119.

32) Plutarch, *Lives: Aratus. Artaxerxes. Galba. Otho*, B. Perrin, trans.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123: “The first of these sacrifices was performed by the priest of Zeus the Saviour; the second by the priest of Aratus, who wore a headband, not pure white but purple and white ...”

‘자색 옷’에 대한 것이 아니라, 머리띠에 관한 것이다. 이 머리띠는 알렉산더가 요나단에게 보낸 황금 관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황금 관은 일반인이 아닌, 왕이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아라투스의 사제가 흰색이 아닌, 흰색 바탕에 자색의 머리띠를 두른 것은 그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흰 머리띠를 두르고 아라투스의 시신을 모시고 행렬하였기 때문이다(Aratus, 53.3).

셋째, 그는 쿵란 문헌의 전쟁두루마리 부분에서 “제사장이 전쟁에 나갈 때에 ‘청색 자색 홍색’의 머리띠 두를 것을 명령한 것”을 인용한다(4 Q 491. 18).³³⁾ 비록 여기에서 머리띠에 자색이 사용되었지만, 이것은 ‘자색 옷’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색은 대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에 사용된 여러 색깔들 중에 하나이다.

라인홀드는 ‘자색 옷과 황금 관’을 문헌에서 찾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사제가 관을 썼는데, 그 중에 일부 자색이 들어간 것과 또는 허리에 두른 띠에 일부 자색이 사용된 문헌을 찾아 마치 알렉산더가 요나단에게 준 선물이 종교적 의미로 준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자색으로만 된 옷 전체’와 ‘일부 자색이 사용된 옷’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않는다. 옷 전체가 자색으로 된 것은 최고의 권력자들이 입는 옷이다.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말하자면 ‘왕복’에 해당하는 것이다. 알렉산더가 요나단에게 보낸 πορφύραν은 전체가 자색으로 된 겹옷이다. 그것은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권자임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에 맞게 그는 ‘황금 관’을 보낸 것이다.

5.2. 마카베오상 10:62-64의 이해

알렉산더 발라스는 정적 데메드리오 1세를 몰리치고 나서, 그는 프톨레마이스에서 이집트의 프톨레미 6세의 딸과 결혼을 하였다. 이 결혼식에 알렉산더는 요나단을 초청한다. 반면 이 결혼식에 요나단 정적들도 참석하여 알렉산더에게 요나단을 고소한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요나단을 옹호하고 그와 정치적 동반자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 이에 대해 『공동개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33) F. 마르티네즈 and E. 티그셀라아르, 『사해문서』 vol. 4, 강성열 옮김(서울: 나남, 2008), 45에서 “보라색과 자주색과 진홍색”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보라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모음 없는 חָכָה인데, ‘청색’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우리말 『개역개정』은 חָכָה וְאַדְמָתָא וְאַדְמָתָא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실”(출 25:4)로 번역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전쟁 나갈 때에 두른 띠의 색깔은 모세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출 28:8 참조).

“왕은 오히려 요나단의 옷을 벗기고 그 대신 **진홍의 사제복**(πορφύραν)을 입히도록 명령하였다. … 요나단이 왕의 명령으로 영광을 차지하고 **진홍색 사제복**(πορφύραν)을 입은 것을 보고 그를 비난하던 자들은 모두 도망쳐 버렸다. 이렇게 왕은 그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가장 친한 친구 중의 하나로 삼아 **그 지방의 군사 및 행정 책임자로** 세웠다”(1마카 10:62-65)

『공동개정』은 알렉산더가 요나단에게 입혀 준 옷을 ‘진홍색 사제복’으로 번역하여,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전혀 다른 종교적 분위기로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알렉산더가 요나단의 겹옷을 벗기고 그에게 πορφύραν을 입혀 주는 것은, 공식적으로 요나단을 유대의 최고 통치자로 임명하는 예식이다. 이에 그를 비난하는 자들은 도망간다. 그들이 도망간 것은 요나단이 종교적인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서가 아니라,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가졌기에 도망간 것이다. 물론 요나단은 대제사장이지만, 그는 앞선 ‘오니아스, 야손, 페넬라오스 그리고 알키모스’와 달리 팔레스틴의 군사 및 행정의 최고 지도자이기도 하다. 그는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지닌 대제사장이다. 유대인들이 셀류시드 왕조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원하는 상황에서 알렉산더가 요나단에게 군사권을 부여한 것은 유대를 독립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암묵적인 암시가 내포되어 있다.

5.3. 마카베오상 11:57-58의 이해

알렉산더 발라스의 어린 아들 **안티오쿠스 6세**는 데메드리오 2세와 싸움에서 승리한다. 그리고 나서 그도 아버지처럼 요나단과 동맹관계를 맺었다. 이에 대해 『공동개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린 안티오쿠스는 요나단에게 편지를 써 보내어 요나단의 대사제직을 인정하고 그를 네 지방의 영주로 임명하는 동시에 왕의 친구 중의 한 사람으로 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금그릇과 식기들을 선물로 보내고 **황금잔**으로 마실 수 있는 권리와 **진홍색 사제복**(έν πορφύρα)을 입을 수 있는 권리와 **황금띠** **vestment**를 착용할 권리를 주었다”(1마카 11:57-58)

안티오쿠스는 요나단이 대제사장임을 인정하고, 사마리아의 네 지역의³⁴⁾ 통치권자로 임명하며 또한 왕의 친구로 삼는다. 또한 요나단이 왕의 친구이

기에, 이 지위에 맞게 생활하도록 금으로 된 그릇과 식기들을 보낸다. 황금잔으로 마실 수 있는 권리와 πορφύρα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것은 왕들이 사용하는 기물로, LXX 1 에스드라 3:6에 의하면 다리우스 왕이 바로 이 옷차림에 황금잔으로 마셨다. 그리고 안티오쿠스는 요나단에게 ‘황금띠 침쇠’를 착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이 황금띠 침쇠는 “관습에 의하면 왕의 친족에게만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안티오쿠스 6세의 아버지 알렉산더가 예전에 요나단에게 선물하였다(1마카 10:89). 알렉산더가 요나단에게 이것을 선물하고, 착용할 권리를 주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안티오쿠스 6세는 그 권리를 주었다. 요나단은 셀류시드 왕가의 복식제도를 따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공동개정』은 ἐν πορφύρα를 ‘진홍색 사제복’으로 번역하여 이런 정치적 의미를 전혀 다른 분위기로 해석하도록 만들었다.

5.4. 헬라어 πορφύρα의 우리말 번역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공동개정』이 πορφύραν를 ‘진홍색 사제복’으로 번역한 것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다. 인류 문화사에서 πορφύραν는 종교적 상징으로 사용되는 예는 지극히 드물고, 주로 정치적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그럼 πορφύραν의 정확한 상징적 의미를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공교롭게도 『공동개정』도 다른 곳에서는 πορφύραν의 상징적 의미를 분명히 잘 파악하고 있다. 요나단의 뒤를 이어 그의 형 시몬이 유대의 대사제로 최고의 통치자가 된다. 이에 유대 백성들의 결의 내용이 마카베오상 14:41-47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이에 대해 『공동개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유다 국민과 사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진정한 예언자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시몬을 영구적인 영도자, **대사제**로 삼는다. 시몬은 유다 국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 성전을 관리하고 온 국민의 활동을 감독하며 나라와 무기와 요새를 장악할 것이다. 온 국민은 시몬에게 복종하여야 한다. … 시몬은 **자색 왕복**(πορφύραν)을 입고 황금장식물로 단장할 권한이 있다. 국민이나 사제 중 어느 누구도 이 결정의 어느 하나 무효로 만들 수 없으며 시몬의 동의 없이 나라에서 어떠한 회의도 소집할 수 없고 **자색 왕복**(πορφύραν)을 입을 수도 없다”(1마카 14:41-47)

『공동개정』은 시몬의 πορφύραν를 ‘자색 왕복’으로 번역하였다. 이것은 시몬이 테메드리오 2세로부터 세금 면제권을 받고(1마카 13:36-40), 기원전 142

34) Jonathan A. Goldstein, *1 Maccabees*, 439.

년부터 공식적으로 “유다인의 대사제이며 사령관이며 지도자인 시몬 제 일년”(1마카 13:42)이라는 연호를 쓸 수 있었기에, 그의 지위를 고려해서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시몬이 유대의 정치적 독립을 이루어 독립적인 연호를 사용했지만, 그는 ‘왕’이 아니라 ‘대사제’로 최고의 통치권자이다. 그러기에 여기서 πορφύραν을 ‘왕복’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개정』이 여기서 πορφύραν을 정치적 의미로 번역한 것은 아주 적절한 것이다.

『공동개정』은 요나단의 πορφύραν을 ‘진홍색 사제복’으로 번역하고, 시몬의 πορφύραν을 “자색 왕복”으로 번역하여, 그 의미를 구별하고자 하였다. 이런 구분에는 번역자가 요나단과 시몬에 관한 많은 역사적 정보를 갖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위의 번역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πορφύραν을 한쪽에서는 ‘진홍색’으로 번역하고, 다른 쪽에서는 ‘자색’으로 번역한 것이다. 용어의 통일성이 결여되었다. 둘째는 πορφύραν을 한쪽에서는 종교적 의미로 이해하고, 다른 쪽에서는 정치적 의미로 이해하였다. 물론 같은 물건이라도 사용하는 사람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달리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나단과 시몬은 동일한 직위로 유대의 ‘대제사장’이다. 단지 정치적 권한이 시몬에게 더 있다는 것뿐이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발행한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모든 곳을 ‘자주색 옷’(1마카 10:20, 62, 64; 11:58; 14:43, 44)이라고 번역하였다. 이 번역은 πορφύραν의 의미를 우리말로 잘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개역개정』에서는 ‘자주색’이라는 표현 대신 ‘자색’이라는 축약형 표현을 더 선호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구절을 ‘자색 옷’으로 표현할 것을 글쓴이는 권하는 바이다.³⁵⁾ 고대 세계에서 ‘자색 옷’을 입었다는 표현은 그의 신분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그가 권력을 가진 자임을 뜻한다. 그러기에 ‘자색 옷’은 정치적 시각을 갖고 바라보도록 요구하는 상징물이다.

6. 결어

인간은 고대로부터 옷의 색깔을 통하여 사회적 신분 질서를 나타내었다.

35) ‘자주색(紫朱色)’ 또는 ‘자주빛’은 ‘자색’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헬라이어 πορφύρα에 대응어로 ‘자색’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앞의 각주 16과 17번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선조들은 ‘자주’보다는 ‘자’색이라는 표현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로 구약의 “청색 자색 홍색”의 표현을 “청색 자주색 홍색” 아니면 “청색 자주빛 홍색”으로 표현하면 운율적인 면에서 어색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자색(πορφύρα)은 최고의 통치권자들에게 허용된 색깔이었다. 곧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권력자이거나 권좌에 올랐다는 것이다(참조, 예 8:15). 그러기에 자색은 정치적 상징의 의미로 이해되어 왔다.

우리말 『공동개정』 마카베오상에 나타나는 ‘진홍색 사제복’이라는 표현이 네 번 나타난다. 이것은 헬라어 πορφύραν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이 어휘의 선택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πορφύρα에 대한 『공동개정』의 번역이 ‘진홍색’(1마카 10:20), ‘자홍색’(요 19:2, 5), ‘자주색’(막 15:20) 그리고 ‘자색’(1마카 14:41)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여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진홍색’, ‘자홍색’ 그리고 ‘자색’은 같은 붉은 계열의 색상이지만, πορφύρα를 ‘자색’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개역개정』은 πορφύρα를 일관성 있게 ‘자색’으로 표현하였다. 둘째, πορφύραν를 종교적 의미를 나타내는 ‘진홍색 사제복’으로 번역하면, ‘자색’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정치적 의미를 드러내지 못한다. 고대의 복식제도에서 ‘자색 옷’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입는 옷으로, 정치적 상징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진홍색 사제복’이라는 표현은 유대의 대제사장의 옷들 중에 이런 색깔의 옷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유대 대제사장 옷의 『공동개정』 색깔은 예봇 받침 겹옷이 ‘청색’이고, 예봇이나 허리띠는 ‘청색 자색 홍색’의 혼합실이 사용되었다.

그러기에 『공동개정』의 ‘진홍색 사제복’이라는 표현은 ‘자색 옷’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 알렉산더 발라스가 요나단에게 ‘자색 옷’을 선물한 것은 그를 자신의 정치적 동반자, 곧 유대의 최고 통치권자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이다. 요나단은 ‘자색 옷’을 입은 유대의 최고 권력자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마카베오상 10-11장을 읽어야 한다.

<주요어>(Keywords)

진홍색 사제복, 자색 옷, 대제사장 의복, 청색, 마카비 혁명, 마카베오상, 요나단.

dark-red robe, purple dress, the dress of high priest, blue, the Maccabean Revolt, 1 Maccabees, Jonathan.

<참고문헌>(References)

-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
- 『성경』,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6.
- Die Bibel in heutigem Deutsch, *Die Gute Nachricht des Alten und Neuen Testaments: mit dem Spätschriften des Alten Testaments*,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2.
-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The Holy Bible: Old and New Testaments with the Apocryphal/Deuterocanonical Books*,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9.
- 마르티네즈, F. and 티그셀라아르, E., 『사해문서』 vol. 4, 강성열 옮김, 서울: 나남, 2008.
- Athenaeus, *The Deipnosophists, Books VI-VII*, Gulick, C. B., trans.,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 Josephus, *Jewish Antiquities*, vol. 4, Thackeray, H. St. J. tra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 Neusner, J. trans., *The Babylonian Talmud*, vol. 19,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Inc., 2005.
- Plutarch, *Lives: Aratus. Artaxerxes. Galba. Otho*, Perrin, B. trans.,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 Thayer, J. H. trans.,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Chicago: American Book Company, 1889.
- VanGermeren, W. A.,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vol. 4,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7.
- 김희성, 『신약의 배경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라이케, 보, 『신약성서시대사』, 한국신학연구소 번역실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 레이니, 앤슨 F., 나틀리, R. 스티븐, 『성경 역사, 지리학, 고고학 아틀라스』, 강성열 옮김, 서울: 이레서원, 2006.
- 류모세, 『열린다 성경: 생활풍속 이야기(上)』, 서울: 두란노, 2010.

- 류호성, “우리말 성서번역에서 대응어 선택의 문제: 홀과 규”, 『성경원문연구』 2 (1998), 97-119.
- 류호성, “자색 옷을 입은 권력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눅 16:19-31)”, 미발표 (2011).
- 설버그, 레이몬드, 『신구약 중간사』, 김의원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 예레미아스, J., 『예수시대의 예루살렘』, 한국신학연구소 번역실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 유득공, 『발해고』, 송기호 옮김, 서울: 홍익출판사, 2000.
- 정연호, 『유대교의 역사적 과정: 바리새파의 재발견』, 서울: 한국성서학 연구소, 2010.
- 필치, 존 J. and 말리나, 브루스, J., 『성서언어의 사회적 의미』, 이달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76-82.
- Block, Daniel I., *Judges-Ruth: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 6,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9.
- Danker, Frederick W., “Purple”, David Noel Freedman, ed.,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5, New York: Doubleday, 1992, 557-560.
- Edwards, Douglas R., “Dress and Ornamentation”, David Noel Freedman, ed.,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2, New York: Doubleday, 1992, 232-238.
- Irvin, D. “Purple”, Bromiley, G. W., ed.,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vol. 3,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6, 1057.
- Goldstein, Jonathan A. *I Maccabees: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76.
- Patch, James A., “Color”, Orr, James, ed.,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aedia*, vol. 2, Grand Rapid: Wm. B. Eerdmans Publishing, 1939, 674-676.
- Reinhold, Meyer, *History of Purple as a Status Symbol in Antiquity*, Bruxelles: Latomus, 1970.
- Schneider, H., “Purple”, M. Landfester, ed., *Brill's New Pauly: Encyclopaedia of the Ancient World*, vol. 12, Leiden: Brill, 2003, 231-234.
- Stith, D. Matthew, “Colors”, *The New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1, Sakenfeld, Katharine D., ed. Nashville: Abingdon Press, 2006, 701.

<Abstract>

**A Study of πορφύραν
in 1 Maccabees Chapter 10-11 (10:20, 62, 64; 11:58)**

Dr. Ho-Seung Ryu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a Korean word corresponding to πορφύραν in 1 Ma 11-10. Under the rule of Selucid Antiochus IV from 167 to 164 B.C., the Jews under the leadership of Mattathias rebel against the king who forces Jews to violate the Torah. This revolt succeeded. Chapters 10-11 of the First Book of Maccabees is about Jonathan who was the leader of the Maccabean Revolt. The Selucid kingship was divided between Demetrius I and Alexander. This was a great help in gaining the religious and political freedom in Judea. By autumn of 152 B.C., Alexander Balas made Jonathan the high priest and called him the king's friend. And Alexander sent him a *purple robe* (πορφύραν) and a golden crown (1 Ma 10:20).

The Bible in Korean published in 1998 translated the Greek πορφύραν as a *dark-red priestly robe* (10:20, 62, 64; 11:58). But the Greek word πορφύραν actually means a *purple robe*. In ancient times, people used to reveal their social status by the color of their dress. The purple dress became a symbol of power. Only kings could put on such purple clothes.

The Bible in Korean assumed that Alexander made Jonathan a high priest, so he gave Jonathan a priestly robe. But the high priest wore sacred vestments that include a breastpiece, an ephod, a robe, a checkered tunic, a turban and a sash. They used gold, blue, purple and crimson yarns and fine linen (Ex 28:1-4). And the robe of the ephod is all blue.

Jonathan was not only the high priest but also the political leader in Judea. And he was the friend of the king of the Seleucid kingdom. So he could recruit troops and equip them with arms (1 Ma 10:21). The gift from Alexander, a *purple robe* and a golden crown, was a symbol not of a religious leader, but of a political leader. We must read 1 Ma 10-11 in a political aspect. The Greek πορφύραν must be translated not as a dark-red priestly robe, but a purple robe.